

# MST: Kruskal & Prim

1115 이정우

## 목차

1	알고리즘 개요	2
1.1	Kruskal 알고리즘 . . . . .	2
1.2	Prim 알고리즘 . . . . .	2
2	자료구조 상세	2
2.1	변수와 ADT . . . . .	2
2.2	구현 상세 및 핵심 코드 . . . . .	3
2.3	복잡도 분석 . . . . .	4
2.4	복잡도 분석 . . . . .	4
2.5	전체 코드 . . . . .	4
3	활용 방안	5
4	인상깊었던 점	5
5	참고문헌	6

# 1 알고리즘 개요

## 1.1 Kruskal 알고리즘

Kruskal 알고리즘이란, 가중치가 있는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트리(MST)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으로, 모든 간선을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뒤, 가장 비용이 낮은 간선부터 하나씩 선택하면서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Union-Find로 관리한다.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정점을 최소 비용으로 연결할수 있으며, 불필요한 간선이 제외되어 최적의 연결 구조를 보장한다.

## 1.2 Prim 알고리즘

Prim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최소 신장 트리(MST)를 찾는 방법 중 하나로, 시작 정점을 기준으로 매번 현재 트리에 연결된 간선들 중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즉, 트리에 속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이미 선택된 정점과 연결된 가장 작은 간선만 골라 확장해 나가며, 모든 정점을 포함할 때까지 반복한다.

# 2 자료구조 상세

## 2.1 변수와 ADT

### 2.1.1 Kruskal 변수

- `parent: any[size]`
  - 각 원소가 가진 대푯값을 표시하는 배열이다.
- `pq: tuple({int, int, int})`
  - 두 정점과 그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우선순위 큐 배열이다.

### 2.1.2 Kruskal ADT

- `my_union() -> int`
  - 두 노드를 병합하는 함수이다.
- `find() -> int`
  - 노드의 대푯값을 반환한다.

### 2.1.3 Prim 변수

- `parent: any[size]`
  - 각 원소가 가진 대푯값을 표시하는 배열이다.
- `pq": tuple({int, int, int})`
  - 두 정점과 그 사이의 거리를 저장하는 우선순위 큐 배열이다.

### 2.1.4 Prim ADT

- `my_union() -> void`
  - 두 노드를 병합하는 함수이다.
- `find() -> int`
  - 노드의 대푯값을 반환한다.

### 2.1.5 Exception

- 특별한 예외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.

## 2.2 구현 상세 및 핵심 코드

### 2.2.1 my\_union()

a와 b를 매개변수로 받은 뒤 두 노드의 대푯값을 찾는 연산 및 사이클 검사를 하는 함수이다. 두 노드의 뿌리가 같아 사이클이 된다면 False, 아니면 True를 반환한다.

```
int my_union(int a, int b){
    int RootX = find(a);
    int RootY = find(b);
    if(RootX == RootY){
        return 0;
    }
    else if(RootX<RootY){
        parent[RootY] = RootX;
    }
    else{
```

```

    parent[RootX] = RootY;
}
return 1;
}

```

### 2.2.2 find()

노드의 대푯값을 반환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이다. 노드 a의 대푯값이 자신을 가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귀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값은 그 노드의 대푯값이 되므로 그 값을 반환한다.

```

int find(int a){
    if(parent[a]==a)return a;
    return parent[a] = find(parent[a]);
}

```

## 2.3 복잡도 분석

- 위 함수를 바탕으로 Union-Find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 $O(n)$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계속해서 parent의 값이 갱신되므로 경로를 찾는 연산 횟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 $O(1)$ 의 시간복잡도를 가지게 된다. 이를 아커만 함수 역함수로 부르며,  $O(a(n))$ 으로 표현된다.

## 2.4 복잡도 분석

- 위 함수를 바탕으로 Union-Find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 $O(n)$ 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계속해서 parent의 값이 갱신되므로 경로를 찾는 연산 횟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 $O(1)$ 의 시간복잡도를 가지게 된다. 이를 아커만 함수 역함수로 부르며,  $O(a(n))$ 으로 표현된다.

## 2.5 전체 코드

```

#include <stdio.h>

int parent[1000001]={0,};

int find(int a){
    if(parent[a]==a)return a;
    return parent[a] = find(parent[a]);
}

```

```

void my_union(int b, int c){
    int RootX = find(b);
    int RootY = find(c);
    if(RootX!=RootY){
        if(RootX>RootY)parent[RootX] = parent[RootY];
        else parent[RootY] = parent[RootX];
    }
}

int main(){
    int n, m;
    scanf("%d %d", &n, &m);
    for(int i=1; i<=n; i++){
        parent[i] = i;
    }
    for(int i=1; i<=m; i++){
        int a, b, c;
        scanf("%d %d %d", &a, &b, &c);
        if(a==0){
            my_union(b, c);
        }
        else{
            if(find(b)==find(c))printf("YES\n");
            else printf("NO\n");
        }
    }
    return 0;
}

```

### 3 활용 방안

#### 1. 서버/네트워크 연결 체크

- Union-Find를 활용하여 연결된 네트워크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수있다.

### 4 인상깊었던 점

이전에는 DFS, BFS, 다익스트라, 플로이드 워셜, 벨만-포드 등 최단경로, 즉 정점과 정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초점에 뒀다면 이번에는 이 노드가 다른노드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구조라 새로웠다. 또한 단순히

같은 경로에 있다는것이 아니라 집합이라는 수학 개념을 활용하여 자료구조를 정의했다는것이 인상깊었다.

## 5 참고문헌

유니온 파인드(Union-Find)